

민주 “여야 내년 예산 2조4천억 감액 잠정 합의”

“내달 2일까지 예산안 통과 노력” 오늘 경제부총리 만나 최종 협의 야당 원내대표와도 회동 추진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천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

다. 21조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제발행을 대체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런 세계잉여금 정산이 끝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 내일 중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에서도 회동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라면서 “시한 내 야당과 최대 합의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동연 “심상정·안철수와 셋이 모여도 단일화 어려워” “李·尹 국가경쟁능력 의심”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9일 “양당 구조와 정치 기득권을 깨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3자 회동을 제안했는데 셋이 모여도 단일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두 후보에게 제안한 3자 회동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정치 기득권의 한 축이었던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 구도를 깨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야기해볼 만하다는 정도”라며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두 분의 국가경쟁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며 “한 분은 수사기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정치선언을 하고 이번 정부에 대한 중요와 비판만 갖고 대선을 뛰고 있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을 했던 분인데 국가 경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르다”며 “기초·광역단체를 운영하면서 국가 경영과 철학에 대한 고민을 덜 하셨을 텐데 이런 점으로 미뤄 국가경쟁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충청 대망론 띄우며 ‘100일 대장정’ 시작

2박 3일간 충청권 민심 잡기

세종시 일정 김병준 위원장 동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9일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의 스타트를 충청권에서 끊었다. 이날부터 세종과 대전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충청권 민심을 훑으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충청행 첫날인 이날 오후 세종-대전을 방문한 뒤 둘째날 청주를 찍고 셋째날 충남 천

안과 아산을 찾는다. 특히 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민심의 풍향계로 통했다. 고(故) 김종필 전 총리 등을 중심으로 ‘충청 대망론’이 일었던 곳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지역 연고를 강조했다. 윤 후보 자신은 서울 출신이지만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라는 점을 고리로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한편, ‘충청 대망론’ 불 지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또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보트를 쥐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다. 충청에서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충청권 방문 일정의 의미를 ‘균형과 미래’라고 요약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정부 주요 부처가 자리한 행정의 중심지인 충청을 국가의 균형 성장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 측은 “과거 동남권에 치우친 산업 발전과 오늘날 수도권 과밀을 극복하는 신(新)중부권 시대로의 도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메카라 할 수 있다”며 “이곳에서 탄소중립과 같은 혁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의 마친 뒤 오후에는 세종시로 건너가 밀마루 전당대를 방문한데 이어,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를 잇달아 찾았다.

이날 윤 후보의 세종 일정에는 참여정부에서 ‘세종시 설계자’를 자임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동행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중민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선대위 인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김병준 위원장에게 윤 후보가 ‘원톱 지휘관’의 힘을 실어준 행보란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시선관위 내달 3일부터 지방선거 위법 예방·단속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위법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이를 위해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태를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사적 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과학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송영길 “공부해야 국민 설득”

‘이재명 바로알기’ 릴레이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부해 알리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 대표를 뽑을 때 주주와 이사가 얼마나 공부하고 검증하겠는가”라며 “국민이 대표 일꾼을 뽑을 때도 후보자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특히 당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더 공부하고 분석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맡은 적이 없고 여의도 밖에서 활동, 민주당 의원·당원들이 이 후보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만큼 먼저 이 후보에 대해 공부하고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손학규 “대통령제 폐지할 대통령 되겠다”... 네번째 대권 도전

“민생당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무한권력 제약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이 네번째 대권 도전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거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이 선거는 괴팍한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문제는 정치”라며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멸의 제약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다”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저는 돈도 조직도 없다.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 홀로 대선”이라며 “거친 광야에 장미꽃 하나 심고 꽃을 피운다

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 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아침에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무소속으로 캠프 없는 대선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87년 체제를 청산하는 게 이번 선거의 목표인 만큼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김중민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오늘 사무실로 나오라고 해 나가서 ‘제가 어려웠던 뜻으로 나가게 됐다, 이해해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p>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p> <p>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 (보2천,월200) 급매가 -> 4억 5천</p> <p>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 (보1천,월100) 급매가 -> 2억 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010-6670-9800</p>